

“형식 달라도 본질은 하나”... 불·유·도 조화 강조

<13> 삼교정립과 이사겸(李士謙) 거사

중국을 다시 통일한 수(隋) 문제(文帝)는 철저한 불교신도였지만, 유·도 양가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의 정책은 유학을 핵심으로 불·도 양가가 보조적 역할을 하는 정책이었다.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에는 “문하(門下)의 법(法)에는 내외가 있을 수 없고, 교(教)에는 알고 깊음이 있어도, 다른 길로 함께 도달한다” “집은 도(道)의 교화를 입어 생각이 매우 정정해 석씨(釋氏)의 불이지문(不二之門)을 따르고 또한 노장(老莊)의 득일지(得一之義)를 귀하게 여긴다”는 문제의 말이 실려 있다. 이것을 보면 불교와 도교를 모두 존중하겠다는 태도가 분명히 보인다. 문제는 수많은 사찰의 건립과 함께 국자의 근간으로 유학(儒學)을 위한 ‘태학(太學)’을 세웠고 도교를 위해서는 여러 도관을 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불·유·도 삼교병립의 상황은 역대 대부분의 황제가 채택한 정책이었다.

중국에 불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동한(東漢) 모용(牟融) 거사의 <모자이혹론(牟子理惑論)>에 이미 불유도 삼교의 융합론이 나타났으며,

겨우 설득해 저택을 사찰로 만들고 거상(居喪)을 그 칠만큼 거사의 불교에 대한 신심은 돈독했다. 그러나 거사는 평생 즐기는 하지 않았고, 또한 어떠한 관직도 갖지 않았다. <수서>에는 거사의 성품을 “어려서 부모를 모두 잃었지만, 평생 고기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으며, 결코 험한 소리를 입에 담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집안이 상당히 부유했으나, 자신은 항상 절약해 남에게 베푸는데 힘썼다고 전한다.

이사겸 거사는 특히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를 설명함에 있어 유·도 양가의 이론을 결합해 논리를 펼쳤다. 그는 인과응보를 설명하면서 유가의 ‘적선(積善)’과 도가의 전적에서 나타나는 윤회전생 증거들을 제시해 불·유·도가 비록 가르침 형식은 달라도 그 본질은 서로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사는 그 가르침에는 우열이 존재함을 강조했다. 그에게 삼교의 우열을 묻자 거사는 “불교는 태양[日]이고, 도교는 달[月]이며, 유교는 다섯별[五星]”이라 답했다. 이는 이후 삼교의 우열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구절이다.



그림 · 김홍인

불경 역경 과정서 유·도가 용어 차용 불가피 중국 불교는 시대상황에 맞춰 ‘융합’의 길로

위진(魏晉)시기 현학(玄學)은 바로 도가와 유가 사상을 불교 반야학으로 회통시키며 나타났던 사조(思潮)였다. 그러나 외래종교인 불교는 끊임없이 유·도 양가의 도전과 배척을 받았다. 그로 인해 몇 차례 심각한 폐쇄 위기를 맞기도 했다. 남북조시기에 이르러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채택됐지만, 불교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 유·도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수를 건국한 문제는 황제로서 이 점을 간과할 수 없어 불·유·도 삼교정립(三教鼎立)을 선포했다. 문제의 삼교정립의 배후에는 바로 이사겸(李士謙) 거사의 건의가 있었다. 그에 따라 중국사와 중국불교사에서는 불·유·도 삼교정립의 건립자들 수의 문제로 설정한다.

이사겸(523~588)은 호가 자약(子約)으로 허북성(河北省)의 조현(趙縣)사람이다. 수나라 역사서인 <수서(隋書)>에 따르면, 어려서 부친을 잃고 홀어머니를 지극히 모셔 효자로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한다. 후에 어머니까지 운명하자 사(喪)를 모심어 극진해 배반 남을 정도가 됐으나 송씨에게 시집간 누이가

원대(元代)에 유명한 거사 류밀(劉勰)은 <삼교평심론(三教平心論)>에서 “수나라 이사겸 거사가 삼교를 논해 불교는 태양이고, 도교는 달이며, 유교는 다섯 별이라고 하였다. 어찌 하늘에 삼광(三光) 가운데 하나가 결여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삼교 가운데 어떤 것 하나 결여될 수 있겠는가? 비록 그 우열은 있을지라도 치우치거나 폐함은 허용할 수 없다”고 논했다. 원대의 염상(嚴嵩) 스님도 “이사겸 거사는 해와 달, 별로서 삼교를 비교했다. 여기에는 마치 우열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세계를 비추고 생령(生靈)이 윤회전생함을 하나의 덕(一德)이 있을 뿐이다. 셋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세계는 안립(安立)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역(周易)>에서는 ‘건도(乾道)의 변화는 각각 바른 성명(性命)이다’라고 했다. 현명한 이사겸 거사어! 너는 성명의 대원(大原)에서 그 깊음을 보노라”(<불조역대통제(佛祖歷代通載)>권10)라고 찬탄했다.

이러한 역대의 찬탄은 이사겸 거사의 ‘삼교조화론’이 상당한 작용을 했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불·

유·도 삼교조화 혹은 일치적 종교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색채가 더욱 짙다. 양한(兩漢)과 위진(魏晉)·남북조(南北朝)를 거치면서 삼교는 서로 치열한 정론을 벌이며 주도권을 잡으려 애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교조화론’은 바로 요즘 기독교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채택한 것과 유사하다.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에 있어서 ‘다원주의’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리 개념상 서로 다른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 진리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정치·사회적인 입장에서 종교가 끊임없이 대립하며 부딪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중국불교의 상황은 ‘종교다원주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중국불교는 역경과 그 행보를 같이 했다. 불교 경전의 번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번역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적합한 번역어 선택이었다. 불가피하게 기존 중국적 사상을 담은 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고, 그러한 번역어 문제는 불교가 본래 지니고 있었던 사상에 중국 고유 사상이 가미되면서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예를 들어 반야부는 최초 역본인 <도행반야경(道行般若經)>에 그러한 재해석의 가능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도행반야경>은 후에 지겸(支謙) 거사에 의해 <대명도경(大明度經)>으로 다시 번역되고, 구마라집(鳩摩羅什)에 의해 <소품반야바라밀경(小品般若波羅蜜經)>으로 번역됐다. 여기에서 ‘도행반야도

行般若’는 후에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로 음역되고, ‘지혜도피안(智慧度彼岸)’으로 의역되는 ‘Prajā Pramit’의 번역이다. ‘도행(道行)’은 <노자(老子)>의 “대도를 행함[行於大道]”에서 연원한 것으로 짐작된다. <도행반야경>은 그 제명에서부터 이미 도가적 색채를 농후하게 풍기고 있다. <도행반야경>을 읽다보면 불교의 반야를 말한 경전인지 도가의 새로운 철학이론을 밝히기 위해 저술된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노장 도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중국불교가 유·도 양가와 융합할 수 있는 근거와 여지를 남겼고, 실제 중국불교는 그 길을 걸었다.

이사겸 거사가 불교적 입장에서 삼교조화론을 제창했던 시기와 동일하게 유교 입장에서 삼교조화론을 제창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왕통(王通; 580~617)이다.

왕통은 산서성(山西省) 하진(河津)사람으로 사후에 문인들이 ‘문중자(文中子)’의 호를 추송했다. 그도 이사겸 거사와 마찬가지로 은거해 제자를 키우며 저술에 힘썼다. 수대(隋代)에 유명한 유학자들을 상당수 배출했다. 그는 <중설(中說)>이라는 저술에서 “<시경(詩經)>과 <서경(書經)> 등이 성행하던 태평한 세상이 멸한 것은 중니(仲尼; 공자의 잘못이 아니며, 화려했던 진(晉)나라 황실이 혼란에 빠진 것은 노장(老莊)의 잘못도 아니다. 제계(齊威)를 뒤린 양(梁)나라 망한 것은 석가(釋迦)의 잘못도 아니다. 잘못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그 도(道)가 헛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교는 각각 모두 통치에 필요한 것으로, 그도가 결코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왕통은 불교와 도교는 본질적으로 ‘선교(善教)’고, 석가와 노자 등은 모두 공자와 같은 성인(聖人)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삼교의 가르침을 서로 융합시켜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한 이른바 ‘통기변(通其變)’한다면 천하에 잘못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교가일(三教可一)’로 불리는 왕통의 주장은 유교를 중심으로 불·도 양교를 흡수하려는 논리였다.

왕통은 비록 유학자였지만, 결코 불교나 도교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았다. 석가모니 부처도 ‘성인(聖人)’으로 공경했으며, 불교가 중국의 국정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에 따라 불교인들은 왕통에게 ‘외호(外護)’의 공이 있다고 보아 <불법금당론(佛法金湯論)>에 그의 전기를 게재했다. <불법금당론>은 제왕(帝王)·명신(名臣)·거유(巨儒) 등이 행한 불교 호법과 관련된 전기를 모은 책으로, 왕통은 이사겸 거사와 함께 권6에 전기가 실려 있다.

이사겸 거사와 왕통의 이러한 삼교정립에 관한 사상을 통해 문제는 삼교정립의 정책을 실시했다. 문제의 이러한 삼교정립의 정책은 이후 중국 황제들에게 중요한 계시를 전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캠페인 PR]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졸	공무원	서울	김창영	1970년생	163	대졸	복지사	충주시
임용우	1966년생	174	고졸	자영업	청주	박영학	1967년생	170	고졸	회사원	고양시
노해용	1972년생	173	고졸	CEO	청주	홍진석	1968년생	167	대졸	시설관리	부천시
이준우	1964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서울
김현태	1957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구	배병언	1967년생	169	대졸	회사원	부산
조복재	1965년생	180	고졸	일반전문직	구미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차기공사	서울
임태범	1981년생	180	대졸	공무원	서천	이규안	1970년생	165	대졸	건설사	광주시
김기범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울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업사	서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도	권순석	1978년생	171	대졸	건설사	경기도
최명길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부천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업사	전주시
오성택	1965년생	165	고졸	회사원	부여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업사	광주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졸	회사원	전주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전
최경복	1971년생	174	고졸	회사원	충북영동	민익식	1969년생	172	고졸	운송업	부산
이정배	1966년생	172	고졸	회사원	대전	최정우	1978년생	178	대졸	건설사	서울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전	노금광	1972년생	162	고졸	회사원	진해시
이영근	1976년생	165	대졸	회사원	대전	정연중	1959년생	165	고졸	공무원	충남
김대중	1974년생	173	대졸	회사원	경기용인	오세준	1975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도
정화성	1960년생	175	대중퇴	공무원	경기이천	박현득	1964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이동희	1972년생	180	대졸	회사원	경북예천	임상훈	1973년생	172	대졸	회사원	경기도
강정복	1965년생	170	고졸	자영업	인천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무원	경기도
정지영	1974년생	174	중졸	회사원	서울	박준근	1965년생	169	고졸	회사원	대구시
임인갑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구	박준규	1971년생	170	대졸	건설사	제천시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융직	서울	최용우	1962년생	164	고졸	자영업	홍성군
김중희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조현욱	1972년생	166	고졸	조리사	경기도
이영일	1965년생	165	대졸	회사원	경원대백	김진목	1969년생	170	고졸	공무원	충북
박중구	1972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인양	김재원	1966년생	175	고졸	회사원	대구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무원	서울	서준은	1971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이동원	1970년생	172	대졸	회사원	서울	이건우	1971년생	173	대졸	자영업	광주시
남근대	1971년생	173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유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선	1965년생	174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